

###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 난기류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낙관시 됐던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이상기류가 형성됨에 따라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는 그동안 음식점에서 식육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점을 강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지난 6월 국회 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의원들이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입법에 반대하는 요식업계의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인기의원(한나라)과 조일현의원(열린우리)이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 이중 이인기의원 발의안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고, 조일현의원 발의안은 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로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거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노력 끝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거둬들인 반대로 압초에 부딪히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지역 39곳 328ha 선정

농림부는 지난 8월 5일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 유채·코스모스 등을 대상으로 전국 39개 지역 328ha를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유채·메밀·코스모스 등을 재배할 경우 소득손실액을 지

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농촌관광과 지역축제 및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사업시행 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당초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경관작물을 수확시까지 성실하게 재배·관리할 경우 10a(300평)당 17만원 을 지급한다.

참여지역은 마을 단위로 1ha 이상 집단화된 곳이 3ha 이상 돼야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마을 단위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읍·면에 사업신청을 하면 적격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02-500-1964

### 검역원·식검, 책임운영기관서 해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가 내년부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부터 해제된다. 반면 종지관리소는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난 7월28일 연구기관이 돈을 벌어 자력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종전대로 환원토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달부터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면 3급 및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도 현재의 원장에서 장관으로 변화되며, 기관장도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도 폐지된다.

###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소비자들 신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스템 도입 매장을 대폭 확대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이마트는 현재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 서울 양재점과 경기 분당점 외에도 8월 중 수도권 8개 매장에 이 제도를 추가 적용키로 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관계기관에 승인 신청을 냈다.

이마트는 기존 황성한우 외에 대관령한우 등 3개 한우브랜드 경영체와 계약을 마쳤으며, 7월 30일부터 서울 은평·가양점에

대관령한우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험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남국현 이마트 바이어는 "올해 초 양재·분당점에서 황성한우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신뢰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풀무원의 유기농 전문 매장인 울가홀푸드도 7월29일 직영 매장인 서울 대치점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연내 서울 방배·압구정점과 경기 분당 이매점 등에도 이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 농산물 외상거래 조심

전국을 무대로 유통 농산물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농가로부터 농산물만 넘겨 받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농민들을 우롱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돼 농가의 외상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유통 농산물유통회사를 차려놓고 농가 등으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50·경남 진주시 신안동) 등 유통사기범 일당 4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강모씨(48)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홍모씨(57·경기도 시흥시 정왕동)를 수배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경북과 대구는 물론, 경기와 경남 등 전국을 무대로 125명으로부터 500여차례에 걸쳐 4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농가와 거래를 트고 처음 한 달 정도는 농산물을 받고 곧바로 결제해 농가로부터 신용을 얻어낸다. 그런 다음에는 대규모로 발주를 해서 물건만 넘겨받고 도주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납품할 때 지나치게 좋은 조건으로 제안하면 한번 더 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슴매입합니다

꽃사슴 암 성록 : 100두  
엘크 암 성록 : 30~40두  
※대형종 우선 매입합니다.

033)342-4724  
011-361-4724

소사월사슴농장  
대표 : 김 성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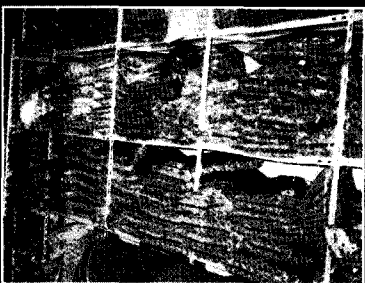
김 종 호

- 국산한약재 전문
- 십전대보탕, 녹용탕, 녹중탕 재료
- 각종 희귀 한약재
- 많은 사슴농가와 거래중이며 한약관련 모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 24시간 상담가능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565  
점 포 : 041)753-8815  
휴대폰 : 011-452-8815  
온라인 : 예금주 김 종 호  
농 협 : 403-02-299498  
우체국 : 311159-0176293

# 금산 녹원약업사

오랜 전통의 경험으로 사슴, 녹용에 가장 알맞는  
고품질 한약재를 정성껏 공급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